

보험계리사 시험 -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쪽

1.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약관의 내용은 개별적인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이고 확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을 하였다면 그 개별약정이 보통약관에 우선한다.
- ③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④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더라도 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2.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익금지의 원칙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한 손해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④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적용하여야 하는 보험에서는 상법상의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받고 보험료가수증을 준 경우에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 ③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 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보험약관조항은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4. 甲은 자신 소유의 보험가액 1억원의 건물에 대하여 乙보험회사와 보험금액 9,000만원, 丙보험회사와 보험금액 6,000만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다. 甲은 두 보험의 보험기간중에 보험목적에 대한 화재로 인하여 5,000만원의 실손해를 입었다. 다음은 각 보험자의 책임액과 그 한도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금액을 ㉠㉡㉢㉣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묶인 것은?(단, 당사자간에 중복보험과 일부보험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함)

乙은 (㉠), 丙은 (㉡)의 보상책임을 지고,
乙은 (㉢), 丙은 (㉣)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① 3000만원, 2000만원, 4500만원, 3000만원
- ② 3000만원, 2000만원, 9000만원, 6000만원
- ③ 5000만원, 4000만원, 9000만원, 6000만원
- ④ 4500만원, 3000만원, 4500만원, 3000만원

5.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써 제3자(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보험금 상당액을 집행공탁하였다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소멸된다.
- ④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중 일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으로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방지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부담한다.
- ③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사고발생 자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방어비용은 손해방지비용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약관에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7. 보험자의 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목적인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보험설계사가 업종변경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알았다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업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자동차보험의 계약대리상이 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③ 보험자의 대리상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수령권에 기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1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대리상이 해당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제수령은 보험자에게 미치게 된다.
- ④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8. 보험계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계약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유증을 통하여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
- ④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9. 甲은 乙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보험자 丙과 체결하였다. 乙의 서면동의가 필요없다는 보험모집인 丁의 설명을 듣고 乙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자와 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丁의 잘못된 설명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당해 생명보험계약은 유효하다.
- ㉡ 乙의 서면동의가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 만약 乙이 사망한다면 甲은 보험자 丙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 甲은 丙에 대하여 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10.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실손보장형(비정액형) 상해보험에 대하여 중복보험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다.
- ㉡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다.
- ㉢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무효이다.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11. 甲은 배우자 乙을 피보험자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乙의 서면동의 없이 생전증여의 대응수단으로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은 무효이다.
- ② 甲은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법정상속인중 1인의 고의로 피보험자 乙이 사망한 경우에 보험자는 다른 법정상속인(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甲이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보험자가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12.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 ③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민법 제 441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3.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험원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고의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적 원리
- ② 위험단체의 구성원이 지급한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리
- ③ 동일한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여 구성원 중에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를 입은 자에게 경제적 급부를 행한다는 원리
- ④ 보험사고의 발생을 장기간 대량 관찰하여 발견한 일정한 법칙에 따라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술적 원리

14. 인보험에서 단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회사인 경우 그 회사에 대하여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 ② 단체 구성원의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③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규약에서 정함이 없어도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은 단체생명보험뿐만 아니라 단체상해보험에도 적용된다.

15.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지의무는 간접의무에 해당한다.
- ②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③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 해상보험에 있어서 적하의 매각으로 인한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 ① 항해 도중에 송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적하를 매각한 경우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항해 도중에 송하인의 지시에 따라 적하를 매각한 경우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③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한 경우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④ 항해 도중에 적하의 가격폭락 우려가 있어 적하를 매각한 경우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17.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설명의무위반 시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를 하지 아니하면 보험약관에 있는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본다.
-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약관을 교부하는 동시에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은 약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18. 생명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②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재지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상태에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다.

25.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일반보험계약자로 보게 된다.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가. 지방자치단체
나. 주권상장법인
다.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
마. 외국금융기관
바. 외국정부
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 ① 가, 나, 마, 사 ② 가, 다, 라, 바
③ 나, 다, 라, 사 ④ 다, 라, 마, 바

2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다.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라.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내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마.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 ① 가, 나, 라 ② 나, 다, 마
③ 가, 나, 다 ④ 다, 라, 마

27. 보험안내자료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다. 보험금 지급확대 조건에 관한 사항
라.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마.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사항
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

- ① 가, 나, 라, 바 ② 가, 나, 다
③ 나, 마 ④ 라, 마, 바

28.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9.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
나.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였다.
다. 보험중개사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라.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설명하였다.
마. 보험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다.

-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라, 마

30.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다.

31.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이 아닌 것은?

- ①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유지
- ②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
- ③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
- ④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 실시

32. 보험회사가 상호협정 체결의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가.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나. 상호협정의 효력 발생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라. 상호협정에 외국보험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33. 금융위원회가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그 변경된 내용을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도록 할 수 있다.

34.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임의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으나, 1개인 동종보험계약의 일부만 이전할 수는 없다.

- ③ 보험계약의 이전결의의 공고에는 보험계약자가 이의할 수 있다는 뜻과 1개월 이상의 이의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35.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 형벌인 벌금이 아니므로 과징금과 벌금을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소속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보험회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④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제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과징금 부과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두 사업 사이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나. 2019. 1. 1. 사업을 새로 성립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A가 그 회사의 사업에 설정된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에 가입한 경우, A가 이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45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급여 중 최종 3년간의 급여는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②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③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④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8.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 ③ 상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을 불문하고 55세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지급된다.
- ④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39.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가입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②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의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③ 가입자와 그의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가입자 본인 또는 그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④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40.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려야 한다.
- ③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입자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